



해외지역정보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 국영 통신회사 상장 예정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영 통신회사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통신업체인 Telkom社가 자국의 요하네스버그 증권거래소(JSE)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 2003년 3월 1일 상장되 예정이다. 이번 기업공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가속화되고 남아공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차례 지연 끝에 3월 4일 상장 예정

1997년 미국의 SBC Communication과 말레이시아의 Telkom Malaysia가 연합한 Thintana Consortium이 30%의 Telkom社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동사의 민영화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에는 남아공의 흑인 연합기업인 Ucingo가 3%의 지분을 매입하였다. 남아공정부는 추가 지분 매각을 계획하였으나, 세계 통신업계의 불황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하자 기업공개를 여러 차례 연기하였다.

이번에 상장되는 25% 지분은 주당 가

격이 33.5랜드(3.15달러)에서 40.9랜드(3.84달러)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년 전의 가격에 비해 1/4 수준이다. 이처럼 하락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남아공 정부는 기업공개에 거듭된 지연에 따른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3월 4일 기업공개에 강행할 방침이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일반 매각가격에서 20%를 할인한 가격으로 주식을 판매함으로써 그 동안 불이익을 받았던 남아공 흑인들에게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민영화로 효율성 증대 및 외국인투자 증가 기대

Telkom社는 요하네스버그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면서 186억~227억 랜드의 자본을 조달하여 남아공의 25대 상장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7년의 부분 민영화 이후 Telkom社는 해직과 아웃소싱으로 40% 정도의 인

력을 줄인 반면, 설비 및 기술 투자는 늘렸다. 최근 3년 동안 Telkom社의 현금흐름은 60%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간 자본의 유입에 따른 경영책임의 강화 및 효율성의 증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Telkom社는 민영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자본시장과 외국의 선진기술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Telkom社가 남아공 정부와 맺은 독점사업 계약이 2002년 5월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다른 통신회사의 시장 진입으로 인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Telkom社로서는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¹⁾

Telkom社의 민영화는 남아공의 여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7~2001년 중 190억 랜드(약 18억 달러)의 민영화 수입을 올린 남아공 정부는 2002년에 전화 및 인터넷 사업체인 M-Cell社를 일부 민영화하였으며, 현재 리조트 회사인 Aventura社, 에너지 부문의 Eskom社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Telkom社의 상장이 완료되면 제반 민영화 사업들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영화의 확산은 남아공의 국제투자등급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인다. 2002년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는 랜드貨의 약세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남아공의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면서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렸는데, 이는 남아공 정부의 민영화 및 규제완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이다. 외국인투자자들로서는 신용등급 전망 호전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감소로 신흥시장 진출 시 부딪히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규정이 정비되고 경쟁이 도입될 경우 외국인투자자들에게 남아공은 아프리카 시장 진입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Telkom社의 민영화는 기업 소유의 분산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번 주식 공모에는 일반공모와 Khulisa 공모가 있는데, Khulisa 공모방식은 저소득층과 과거에 차별을 받아 온 계층(흑인)에게 일반

〈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영기업 민영화 추진 현황

| 회 사 명 | 산 업 | 진행상황 | 민영화 예상수입 |
|------------------------------------|-----|---------------------|--------------|
| Telkom | 통 신 | 2003년 3월 4일 IPO 예정 | 190억 랜드 |
| Aventura | 리조트 | 8개의 리조트 매각이 진행중 | - |
| The South African Forestry Company | 임 업 | 2개의 삼림지 매각 협상중 | 3억 3,500만 랜드 |
| Durban | 항 구 | 2003년 말까지 이양 예정 | - |
| Alexor | 광 산 | 2003년에 지분 51% 매각 예정 | - |
| Eskom | 에너지 | 2003년에 부분 매각 예정 | - |

자료: EIU Country Report, South Africa, 2003.1.

1) 남아공 정부는 1997년 SBC Communication 및 Telkom Malaysia와 약속한 독점 보장기간이 2002년 5월로 끝남에 따라 제2의 통신사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최근 영국의 Goldleaf와 남아공의 Optis가 인가를 신청했으나, 남아공 정부가 이를 거부하여 경쟁사의 신규 진입에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임.

공모방식에 비해 20%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 방식을 통해 저소득층 및 일반 국민들이 주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산될 것이다.

정치적 저항과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 상존

그러나 Telkom社를 비롯한 국영기업의 민영화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노동조합의 저항은 민영화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COSATU²⁾라 불리는 남아공 최대의 노동조합은 Telkom社의 민영화에 반대하여 대규모 시위를 펼쳐 매각 실사가 여러 차례 중지되기도 하였다. 노동조합이 민영화를 반대하는 또 다른 이유는,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 단행될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에 따라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Telkom社 노동조합은 흑인들에게 Khulisa 공모로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하여 인종 역차별이라며 반대하고 있다.³⁾

또한, 남아공 정부가 몇 차례 민영화를

지연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잃은 데다, 신흥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도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랜드貨 약세, 미국 WorldCom社의 부도로 인한 통신업계의 손실 및 새로운 투자에 수반되는 높은 불확실성 등도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게다가 투자 관련 규정도 미비한 상태여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적인 저항과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통신 부문의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남아공의 통신산업은 아프리카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동시에 현재 느리게 진행중인 다른 민영화를 촉진하여 남아공이 경제성장과 활발한 투자유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최혜진】

2) The Congress of South African Trade Unions의 약자. 1980년에 출범한 정치조직으로, 남아공의 현 집권당인 아프리카민족회의(ANC)의 노동 개혁과 민영화 정책에 반대함.

3) Telkom社 노동자들의 18%만이 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며, 현재 조합원의 90%는 백인임.